

# 中國佛教典籍分類的 一研究

金 鍾 天\*

## 〈目 次〉

- |                  |              |
|------------------|--------------|
| I. 緒 言           | 1. 須伽精舍主人分類法 |
| II. 中國佛典分類略史     | 2. 王文山分類法    |
| 1. 佛典分類的 起源      | 3. 劉國鈞分類法    |
| 2. 佛典分類的 發達      | IV. 結 論      |
| III. 現代의 主要佛典分類法 |              |

## I. 緒 言

現代 中國의 著名한 書誌學者인 姚名達은 中國目錄學의 歷史를 섭렵하고 다음과 같이 結論지었다. “中國目錄學은 千年歷史上 전혀 進歩가 없었다. 始終 「七略」과 「四部」의 모습을 打破하지 못 했으며, 始終 劉向과 荀勗의 틀레를 벗어나지 못 했다. <sup>(1)</sup>”고 斷定하고, 이어서 “學者라는 사람들은 中國 이외에 또 다른 世界가 있는지, 儒學 이외에 또 다른 學術이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文化가 도대체 進展이 없었다. <sup>(2)</sup>”고 한탄하였다.

그러한 目錄學史에서 그래도 가장 가치가 있는 分野는 佛典目錄이라고 主張하고, 佛典目錄이 一般目錄에 比하여 最少限 다섯가지의 優秀性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各 佛書마다 傳來·翻譯·淵源·譯者略傳·翻譯時期·翻譯場所 등의 事項을 詳細하게 記錄하여 歷史觀念이 매우 發達했으며(歷史觀念很發達), 둘째, 疑心이 가는 佛書에 대하여는 모두 仔細히 考證하여 眞僞의 識別에 徹底를 기렸으며(辨別眞僞很嚴格), 셋째, 하나의 佛書에 여러 種의

\* 祥明女子大學 圖書館學科 專任講師

(1-2) 姚名達, 目錄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60 (1971), p.90.

## 2 도서관학논집

譯本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일일이 列擧하고 그들의 異同과 得失을 比較·考究하여 異同의 比較에 더욱 詳細했으며(比較異同很詳審), 넷째, 비록 失傳의 佛書라도 반드시 그 書名을 記錄하여 그 책이 어느 때 逸失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搜採遺逸很勤勞), 다섯째, 著述·翻譯時期 혹은 性質에 分類하고 같은 性質 중에서도 혹은 그 內容에 따라 細分하였고, 同一目錄에서도 各種分類方法을 並用한다든가, 같은 책은 경우에 따라서 2곳 이상에 分類하는 方法(分類極複雜而很周備)도 採用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일찍기 佛典目錄이 이와 같이 注目되었던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方面에 대한 研究가 매우 드물어<sup>(4)</sup> 아쉬움이 크다.

이러한 點에 關心을 가지면서 여기서는 우선 中國의 佛敎典籍分類法을 段階적 包括的으로 살펴 보는 機會를 마련하여 위의 姚名達의 見解를 確認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中國佛典分類의 歷史를 概觀하고 이어 現代의 主要한 佛典分類法을 考察한다.

## II. 佛典分類略史

佛敎典籍分類의 變遷過程을 考察하기에 앞서 우선 各種文獻에 나타나는 中國歷代의 佛典目錄을 時代順으로 一覽表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表 1>· 中國佛典目錄一覽表<sup>(4)</sup>

書名	卷數	著者	年代	存佚	略稱
古經錄	1			佚	
舊錄	1			佚	

(3) 上掲書. p.90-91.

(4) 이分野에 關한 論文은 다음 몇 種이 있을 뿐이다.

① 鄭敏謨. “大藏目錄의 體系” 한국비블리아 6輯, 1984, 10. pp.47-80.

② 金聖株. “敎藏總錄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韓國圖書館學會) 10輯, 1983, 6. pp.121-148.

(5) 이 一覽表는 ①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62 [1973]. pp.231-237. 中國歷代佛敎目錄所知表, ② 梁哲超. “佛家經錄在 中國目錄學之位置” 佛敎目錄學述要.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民國 67 [1978]. pp.22-28. 元以前 經錄一覽表 및 ③ 馮承鈞. “大藏經錄存佚考” 大藏經研究叢編(上).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民國 66 [1977]. pp.349-354. 大藏諸錄一覽表 등을 參考하여 作成한 것이다.

書名	卷數	著者	年代	存佚	略稱
漢時佛經目錄	1			佚	
漢錄	1	朱士行	曹魏	佚	
衆經錄	1	竺法護	西晉武帝	佚	
衆經錄	1	曇道真	西晉懷帝	佚	
趙錄	1			佚	
綜理衆經目錄	1	釋道安	東晉寧康 2年	佚	安錄
二秦錄	1	釋僧叡	姚秦	佚	
衆經錄	4	釋道流	東晉	佚	
經論都別錄	1	支敏度	東晉成帝	佚	度錄
衆經目錄	2	王宗	南齊武帝	佚	宗錄
釋彌充錄	1	釋彌充	南齊	佚	
宋齊錄	1	釋道愨	南齊	佚	
釋道憑錄	1	釋道憑	北齊	佚	
正度錄	1	釋正度		佚	
王車騎錄	1			佚	
始興錄	1			佚	
廬山錄	1			佚	
峇號錄	1			佚	
菩提流支錄	1		元魏	佚	
華林佛殿衆經錄	4	釋僧紹	天監14年	佚	
靈裕法師譯經錄	1			佚	
衆經都錄	8			佚	都錄
衆經別錄	2			佚	別錄
出三藏記集	15	僧祐	梁天監間	存	祐錄
梁衆經目錄	4	寶唱	梁天監17年	佚	唱錄
魏衆經目錄	10	李廓	北魏永熙間	佚	廓錄
齊衆經目錄	8	法上	北齊武平間	佚	上錄
隋衆經目錄	5	法彥		存	彥錄
隋衆經目錄	6	法經等	隋開皇14年	存	法經錄
歷代三寶記	15	費長房		存	長房錄
仁壽內典錄	5	玄琬	隋仁壽間	佚	琬錄
唐衆經目錄	15	靜泰	唐龍朔 3年	存	
大唐內典錄	10	道宣	唐麟德元年	存	內典錄
古今譯經圖記	4	靖邁	唐高宗	存	邁錄
武周衆經目錄	15	明佺	天冊萬歲元年	存	佺錄

書名	卷數	著者	年 代	存佚	略稱
續大唐內典錄	1	智昇	唐開元18年	存	昇續錄
續譯經圖記	1	同上	同上	存	昇記
開元釋教錄	20	同上	同上	存	開元錄
開元釋教錄略書	4	同上	同上	存	昇略
續開元釋教錄	2	圓照	唐貞元10年	存	照續錄
貞元釋教錄	30	同上	唐貞元間	存	貞元錄
續貞元釋教錄	1	恆安	唐保大4年	存	
祥符釋教錄			宋祥符間	佚	
景祐釋教錄			宋景祐間	佚	
聖教法寶標目	10	王吉	元大德元年	存	標目
至元法寶勘同	10	慶吉祥	同上	存	勘目
大明釋教彙門標目	4	釋寂曉	明	存	
大明釋教彙業目義門	41	同上	同上	存	
闕藏知津	48	釋智旭	清順治11年	存	旭錄
如來大藏經總目錄	1		清康熙22年	存	
滿洲刻藏目錄	1		清乾隆57年	存	

### 1. 佛典分類의 起源

中國歷史上 最初의 佛敎典籍目錄은 東晉 孝武帝 寧康 2年(374) 釋道安에 의하여 編纂된 「綜理衆經目錄(略稱:安錄)」으로 보는 것이 가장 一般的이다. (6) 慧皎의 「高僧傳」에 의하면 “漢魏로 부터 晉나라에 이르기 까지 經典의 傳來가 점차 더욱 盛行하였다. 그러나 經典을 전한 사람의 이름을 記錄하지 않았으므로 後人們이 年代를 考證하기가 어렵었다. 이에 道安이 名目을 總集하여 時代와 사람을 記錄하고 新舊를 評價하여 佛經目錄을 撰述했다. 이로써 群經을 考據할 수 있게 되었다.” (7)”고 하였으며, 僧祐의 「出三藏記集」(略稱:祐錄)에도 “大法의 傳來는 6代에 걸렸으며 群經의 目錄을 編纂한 사

(6) 梁啓超(上揭論文, p.26-27)와 姚名達(目錄學, p.92) 등이 一致된 見解를 보이고 있다. 現存 最古의 佛典目錄인 僧祐의 「出三藏記集」은 數次에 걸쳐 「舊錄」을 引用하고 있는바, 賈長房은 自身이 撰述한 「歷代三寶記」에서 「安錄」이전의 佛經目錄을 指稱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으며 後人들도 모두 그의 說을 따랐다. 그러나 「祐錄」이전에 나온 目錄은 모두 「舊錄」으로 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安錄」이전에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 賈長房의 主張은 應說로 밝혀지고 있다. (梁啓超, 上揭論文, p.29)

(7) 陳鴻飛, “佛敎典籍分類之研究” 佛敎目錄學述要, p.105.

받은 오직 安公이었다.<sup>(8)</sup>”고 強調하였으니 佛經目錄의 撰集은 東晉의 道安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安錄」은 지금 이미 亡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祐錄」을 編纂할 때 「安錄」에 따랐으므로 現存하는 「祐錄」을 通하여 「安錄」의 輪廓을 把握할 수 있다. 「安錄」의 組織 및 內容은 다음과 같다.<sup>(9)</sup>

第1本錄：譯者の 年代順으로 著錄하였으며, 全體의 著錄數는 17家 247部 87卷이다.

第2失譯錄：譯者の 姓名을 알 수 없는 것을 收錄하였으며, 모두 134種이다. 第3涼土異經錄·第4關中異經錄：譯者の 姓名은 알 수 없지만 翻譯地를 알 수 있는 것을 收錄하였으며 涼土는 59部 79卷, 關中은 24部 24卷이다.

第5古異錄：이것은 대체로 大經으로 부터 單篇을 拔萃·翻譯한 것이며 後世의 ‘別生’을 말한다. 모두 92部 92卷이다.

第6疑經錄：道安이 僞經으로 鑑別한 것으로 모두 26部 30卷이다.

第7注經及雜經志：이는 모두 道安이 群經에 注釋을 달은 것 및 기타 佛學과 관련된 著述인 바, 18種 27卷을 收錄했다.

「安錄」은 비록 1卷의 작은 分量이지만 그 體裁가 꽤 불단 한데 그 중에 다음 몇 가지<sup>(10)</sup>는 특히 중요하다.

첫째, 純粹한 年代順 著錄이므로 斯學의 發展의 자취 및 諸家의 流派를 알 수 있다.

둘째, 譯者를 알 수 없는 것은 別途로 著錄하였다.

셋째, 拔萃·翻譯한 것을 따로 著錄하여 佛典의 性格에 따라 分類하였으며, 또한 眞僞의 區別을 分明히 하였다.

넷째, 注解書를 별도로 著錄, 本經과 區分하여 主從關係를 明確히 하였다. 이러한 事項들은 그 이후의 많은 佛典目錄에서도 매우 중요한 原則으로 取扱되었다.

(8) 僧祐, 出三藏記集, p.1.(大正新修大藏經 第55卷 目錄部全 所收)

(9) 梁啓超, 前揭論文, pp.29-31.

(10) 上揭論文, p.30-31.

## 2. 佛典分類의 發達

現存하는 最古의 佛典目錄은 梁나라 僧祐의 「出三藏記集」인 바, 梁의 武帝天監年間에 編纂되어 中國佛學參考書 가운데서도 年代가 가장 올라 간다.<sup>(11)</sup> 僧祐는 이 目錄의 自序에서 “옛날 道安法師가 鴻才淵鑑으로 經錄을 撰集, 見聞을 訂正하여 明確히 區分되었다. 이로부터 이따글 佛典이 나타나 드라도 年代人名 등을 새로이 考證할 필요가 없었다<sup>(12)</sup>”고 하며, 또한 “내가 감히 淺學菲才로서 前規를 模倣하여 愚見으로 新錄을 만든다<sup>(13)</sup>”고 하였다. 따라서 僧祐의 「出三藏記集」은 사실상 道安을 私淑, 「安錄」을 繼承하여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僧祐는 스스로 「祐錄」에 대하여 “첫째는 撰緣記 둘째는 銓名錄, 셋째는 總經序, 넷째는 述列傳이다. 緣記를 撰했으니 原始의 本을 確認할 수 있으며, 名錄을 考證하였으니 年代의 目이 亡失되지 않을 것이요, 總序를 總括하였으니 總集한 時期를 考據할 수 있으며, 列傳을 敘述하였으니 그 사람의 風貌를 알 수 있다<sup>(14)</sup>”고 說明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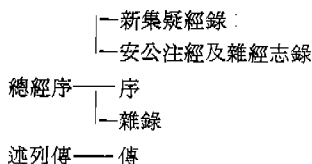
이 目錄의 分類體系는 아래 表와 같다.

〈表 2〉 出三藏記集의 分類體系

撰緣記	
銓名錄	— 新集經論錄
	— 新集異出經錄
	— 新集安公古異經錄
	— 新集安公失譯經錄
	— 新集安公涼土關中異經錄
	— 新集律部錄
	— 續撰失譯雜經錄
	— 新集抄經錄
	— 安公疑經錄

(11) 이 「出三藏記集」의 編纂時期에 대하여는 見解가 서로 갈리고 있다. 梁啓超는 上揭論文, p. 32에서 “祐가 죽은것은 梁代이지만 그책이 完成된 것은 齊의 建武 때”라고 主張하여 그 편찬 年代를 상당히 올려 잡고 있으며, 陳鴻飛(前揭論文, p. 105)와 姚名達(目錄學, p. 94)도 梁의 見解에 同調하고 있다. 그러나 呂澂의 佛敎研究法(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民國 66 (1977), p. 16)에서는 “「祐錄」의 確實한 著述年代는 알 수 없지만 이 目錄안에 ‘天監九年(510)年’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이후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12-14) 僧祐, 出三藏記集, p. 1. (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祐錄」은 먼저 4개의 類로 나누고 다시 卷數에 의하여 8개의 綱으로 區分하였다. 綱 아래 다시 目으로 分類하고 있다. 「祐錄」의 銓名錄類는 대체로 「安錄」을 引用하였으며, 나머지 3類는 僧祐가 創案한 것이다.

「祐錄」이 佛典目錄에 끼친 공헌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sup>(15)</sup>

첫째, 佛典의 來歷 및 翻譯方法을 敘述했다(敘述佛典來歷及 翻譯方法): 疏略하거나 誤謬된 部分이 많지만 이러한 研究는 이 目錄이 嚆矢가 된다.

둘째, 「異出」 目を 새로이 設定했다(新立異出部): 하나의 佛典으로 여러 翻譯本이 있는 것은 일일이 列舉하여 比較할 수 있도록 하였다. 佛典目錄에서 이러한 方法은 매우 重要한 것인데 「祐錄」에서 시작되었다.

셋째, 「抄經」 目を 새로이 設定했다(新立抄經部): 節抄本은 原書와 同等하게 列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넷째, 經序를 널리 收錄했다(廣搜經序): 이러한 方法도 「祐錄」에서 최초로 使用한 것이다.

다섯째, 列傳을 詳述했다(詳述列傳): 「安錄」도 譯者의 年代順으로 著錄되어 있으나 譯者의 傳記에 대하여는 그다지 詳細치 않다. 「祐錄」은 別途로 列傳을 設定하였다.

「祐錄」이후의 佛典目錄에서 分類에 價重한 것으로 「魏衆經目錄」(略稱: 李廓錄)과 「梁衆經目錄」(略稱: 賈唱錄) 2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佚書이다. 지금은 「長房錄」에 그 篇目만 정할 뿐이지만 佛典分類上 相當한 가치가 있다.

우선 「李廓錄」의 分類體系<sup>(16)</sup>를 보면 다음과 같다.

(15) 梁啓超, 前揭論文, p. 34—35.

(16) 上揭論文, p. 36—37.

〈表 3〉 魏衆經目錄의 分類體系

大乘經律  
 大乘論  
 大乘經子註  
 大乘未譯經論  
 小乘經論  
 小乘論  
 有目未得經  
 非眞經  
 非眞論  
 全非經愚人妄稱

「李廓錄」은 費長房도 매우 條理있는 것으로 評한 바 있다. 이 目錄의 特色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sup>(17)</sup>

첫째, 大小乘分類이다. 이는 대체로 「衆經目錄」을 撰한 王宗이 創案하였는데 李廓이 그것을 模倣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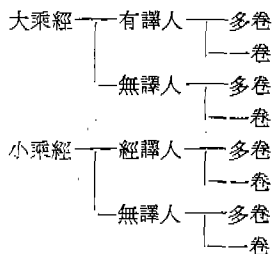
둘째, 經律論分類이다. 이는 李廓이 草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아직 翻譯되지 않은 經論은 별도로 그 題目을 記錄했다.

넷째, 僞書類를 非眞과 全非眞 두 種으로 區分하였는 바, 이는 後日 疑惑과 僞妄으로 分類하는 方法의 先驅가 되었다.

다음 「寶唱錄」의 分類體系<sup>(18)</sup>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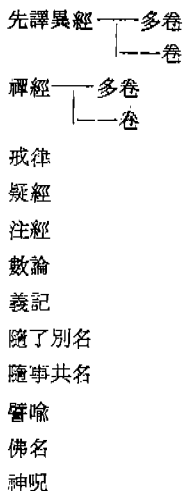
〈表 4〉 梁衆經目錄의 分類體系



(17) 上揭論文, p. 37.

(18) 上揭論文, p. 37—38.





「寶唱錄」은 梁나라 天監 17年(518)에 勅命에 의하여 編纂되었다. 이 目錄의 分類는 지나치게 詳細함을 追求하여 너무 繁雜하며 論理에 맞지 않는점이 있다.

이 目錄의 短點은 대체로 다음 4가지로 指摘된다.<sup>(19)</sup>

첫째, 諸佛典을 一卷本과 多卷本으로 區分하고 뜻을 取하지 않았다.

둘째, 論을 主類로 區分하지 않아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分明하지 않다.

셋째, 禪經 이하는 너무 繁雜하게 細分되어 體系가 없다.

넷째, 異譯經類를 따로 設定하지 않았다.

現存하는 佛典目錄 중에서 가장 嚴格하고 法度에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隋의 「法經錄」<sup>(20)</sup>을 꼽는다. 이 目錄은 開皇 14年(594) 大德 法經 등 20인이 編纂한 것인데 本名은 「大隋衆經目錄」이다. 當時는 佛敎가 學問적으로 이미 全盛時代에 있었으며, 이 20인 또한 모두 當代의 著名한 學僧이었으므로 좋은 結果를 거둘 수 있었다.<sup>(21)</sup> 이 目錄은 두 가지 分類方法을 사용하고

(19) 上揭論文,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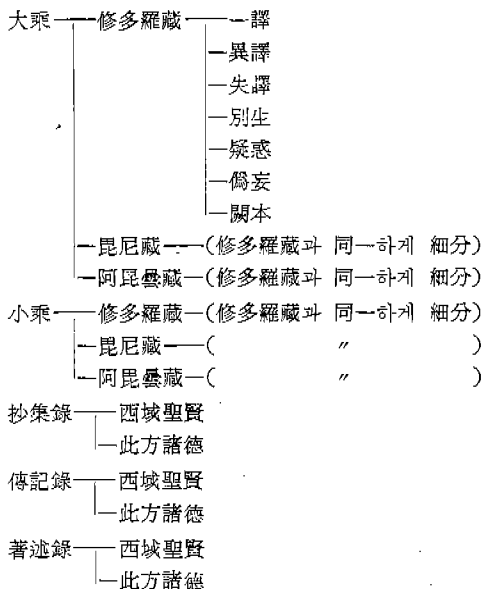
(20) 法經等, 隋衆經目錄(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21) 梁啓超, 前揭論文, p. 39. 및 姚名達, 目錄學, p. 97.

있는 바, 하나는 책의 內容 또는 本質이요, 다른 하나는 책의 流傳狀況이다.

「法經錄」의 分類體系는 다음 表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表 5〉 隋衆經目錄의 分類體系



上掲의 表를 보면, 佛敎典籍을 먼저 大乘·小乘·抄集·傳記·著述의 5개의 類로 分類했다. 大乘類와 小乘類의 경우는 修多羅藏·毘尼藏·阿毘曇藏 즉, 經律論의 三藏으로 區分하고 다시 一譯·異譯·失譯·別生·疑惑·偽妄闕本の 7目으로 細分하였다. 그리고 抄集·傳記·著述錄은 西域과 此土의 2網으로 나누었다. 요컨대 이 目錄은 經律論 三藏分類法을 確立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佛典들을 科學的인 方法으로 包括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2)</sup>

隋代의 目錄은 「法經錄」 이외에도 두 가지 重要한 것이 있다. 그 하나는 彥琮의 「隋衆經目錄」이요, 다른 하나는 費長房의 「歷代三寶記」이다.<sup>(23)</sup> 佛典目錄 가운데 「隋衆經目錄」이라는 題目을 가진 것이 2種이 있는데 6권으로

(22) 陳鴻飛. 前掲論文, p.108.

(23) 梁啓超. 前掲論文, p.43.

된 것과 5권으로 된 것이 그것이다. 前者가 곧 上述한 「法經錄」이며 後者は 撰者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貞元釋敎錄」의 記錄<sup>(24)</sup>을 通하여 後者의 撰者가 彦琮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彦琮은 梵文에 能通하였으며 玄奘 이전의 最高의 博學者라고 한다. 續高僧傳에 “仁壽 2年 勅命을 내려 다시 「衆經目錄」을 編纂하도록 하였다. 이에 單譯·重譯·別生·疑惑·僞妄의 5類로 區分하였다.”<sup>(25)</sup>고 하여 이 目錄의 分類體系가 거의 「法經錄」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現存하는 五卷本目錄(彦琮錄)<sup>(26)</sup>은 單本重譯·別生·疑僞·闕本の 6類로 되어 있으므로 「續高僧傳」의 記錄과 完全히 答稱되는 것은 아니다. 五卷本이 六卷本보다 한 가지 優秀한 것은 闕本類를 別途로 設定하여 佛典의 存佚를 考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反面에 한 가지 떨어지는 것은 聖賢集傳을 細分하지 않고 있는 點이다.<sup>(27)</sup> 어쨌든 「彦琮錄」은 中國佛典目錄史에서 매우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費長房이 撰述한 「歷代三寶記」는 「開皇三寶錄」이라고도 稱하고 「長房錄」으로 略稱한다.<sup>(28)</sup> 모두 15卷의 比較的 規模가 큰 目錄이다. 前 3卷은 年表이고, 第 4卷 부터 12卷까지는 後漢으로 부터 附에 이르는 歷代의 翻譯經典을 著錄하고 있는데 譯者의 年代順으로 排列하여 譯者마다 먼저 그가 번역한 佛典을 列擧하고 끝에 小傳을 두었다. 이어 卷13·14는 大小乘入藏目이며 卷 15는 序傳으로 歷代의 佛典目錄을 添附했다. 이 「長房錄」은 開皇 14年(594)에 이루어진 「法經錄」보다 不過 3年 뒤인 開皇 17年(597)에 完成되었지만 「法經錄」이 4094卷(存目を 合하면 5234卷)을 著錄하고 있는데 比하여 「長房錄」은 놀랍게도 무려 6235卷을 收錄하고 있다.<sup>(29)</sup> 이 目錄의 가장 불만한 것은 前 3卷의 年表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事實考證에 誤謬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體裁는 여기서 처음으로 使用된 것이다.<sup>(30)</sup>

(24) 圓照, 貞元釋敎錄(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25) 梁啓超, 前揭論文, p. 43.

(26) 釋彦琮, 隋衆經目錄, (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27) 梁啓超, 前揭論文, p. 43.

(28) 上揭論文, p. 44.

(29-30) 梁啓超, 前揭論文, p. 44.

佛典目錄은 隋代에 이르러 大成되었다. 그 流派를 綜合하면 2系統으로 나눌 수 있다.<sup>(31)</sup> 그 하나는 分類 및 眞僞識別에 置重하는 流派로 僧祐·李廓에게서 發達하여 隋의 法經에 의하여 集大成되고 唐의 靜泰·明銓에 의하여 繼承되었다. 다른 하나는 年代 및 譯者에 置重하는 流派로 竺道祖에서 시작되어 隋의 費長房에 의하여 集大成되고 唐의 靖邁에 의하여 繼承되었다.

唐代的 佛典目錄學은 道宣과 智昇이 그 前後를 裝飾하고 있다. 道宣의 學風은 「出三藏集記」를 編纂한 僧祐와 酷似하였다. 둘이 모두 佛敎의 律法에 밝은 學僧이었고 또한 둘이 모두 佛門掌故에 該博하였다. 有名한 「大唐大典錄」 10卷은 實로 그의 70歲 때의 著作인바, 法과 長房 兩派의 短點을 除去, 長點을 取하고 아울러 組織的이고 合理的인 體系를 이루어 佛典目錄의 白眉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 分類體系를 表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33)</sup>

〈表 6〉 大唐內典錄의 分類體系

唐代衆經傳譯所從錄

- 後漢
- 前魏南吳西晉
- 東晉前秦後秦西涼北涼
- 宋前齊梁後魏後齊
- 後周陳隋皇朝

歷代翻本單重傳譯有無錄

- 大乘經律論
- 小乘經律論

歷代衆經分乘入藏錄

- 大乘經 — 一 譯
  - 重翻
- 小乘經 — 一 譯
  - 重翻
- 小乘律
- 大乘論
- 小乘論
- 聖賢集傳

(31) 陳鴻飛. 前掲論文, p. 108.

(32) 梁啓超. 前掲論文, p. 45.

(33) 道宣. 大唐內典錄. (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歷代衆經舉要轉讀錄  
 歷代衆經有目闕本錄  
 歷代道俗述作注解錄  
 歷代諸經支派陳化錄  
 歷代所出疑僞經論錄  
 歷代衆經錄目始終序  
 歷代衆經感應興敬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를 10錄으로 나누었다. 道宣은 스스로 10錄의 義例를 밝히고 있으므로<sup>(34)</sup> 그의 分類에 대한 觀點을 把握할 수 있다. 「內典錄」은 이전의 佛典目錄과 比較하여 대체로 다음의 長點<sup>(35)</sup>을 지닌다.

첫째, 卷 1로부터 卷 5까지의 傳譯所從錄은 「長房錄」全部를 包括하고 있다. 단지 「長房錄」은 該博함에 힘써서 眞典僞經이 雜多히 收錄되었지만 「內典錄」은 考證을 徹底히 하여 眞僞를 明確히 區分하였으며, 하나의 佛典으로 多數의 譯本이 있는 것은 모두 ‘初出’ ‘第二出’ ‘第三出’ 등의 文字로 注記했다. 이러한 例는 물론 「長房錄」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지만 「內典錄」에서 定例化되었으며 每 佛典마다 그것이 역대의 目錄上에 처음으로 著錄되었던 狀況을 일일이 注記하여 그 淵源을 밝혀주고 있다.

둘째, 單重傳譯有無·分乘入藏·支派陳化·疑僞經論의 4錄은 「法經錄」全部를 包括하였다. 단지 「法經錄」은 每 類 아래 大乘·小乘 2類에는 각각 ‘一譯·異譯·失譯·別生·疑惑·僞妄’의 6綱으로 區分하였으되 나머지 ‘抄集·傳記·著述錄」에서는 ‘西域’과 ‘此土’로만 區分하여 一貫성을 잃고 있다. 그러나 「內典錄」은 매우 合理的으로 組織되어 있으며, 「法經錄」은 ‘疑惑’과 ‘僞妄」을 들로 나누었는데 「內典錄」에서는 하나로 合하고 있다. 이러한 것도 「內典錄」이 「法經錄」보다 우수한 點으로 看做된다.

셋째, 法經은 ‘闕本」을 두지 않았으나 道宣은 ‘有目闕本錄」을 設定하고 스스로 將來 採訪의 資料로 삼으려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點은 確實

(34) 上揭書, p. 219.

(35) 梁啓超, 前揭論文, p. 47-48.

히 目錄學者가 가져야 할 態度라고 할 수 있다.

넷째, 「內典錄」에서 가장 가치있는 考案은 특히 ‘衆經舉要轉讀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各種異譯經에 대하여 最善本 하나를 가려서 提示하고 있는 部分인데 그 利用價值가 매우 크다.

다음으로 智昇의 「開元釋教錄」<sup>(36)</sup> 20卷은 대체로 「內典錄」을 模倣한 것이 더 그 특징은 經論分類面에서 더욱 精密을 期한 데 있다.<sup>(37)</sup> 다음에 그 分類體系를 表로 나타낸다.

〈表 7〉 開元釋教錄의 分類體系

正錄二總集群經錄

別錄二別分乘藏錄

- 有譯有本錄
- 有譯無本錄
- 支派別行錄
- 刪略繁重錄
- 補闕拾遺錄
- 疑惑再詳錄
- 僞妄亂真錄
- 大乘入藏錄
- 小乘入藏錄

위의 表는 「開元釋教錄」 分類體系의 大類目을 表示한 것이며, 그 類目 아래 다시 各各 몇 個의 細目으로 分類하고 있다. 여기서는 ‘有譯有本錄’<sup>(38)</sup>의 細目을 들어 그 體系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8〉 開元錄有譯有本錄의 分類體系

菩薩三藏錄

- 菩薩契經藏
  - 般若經新舊譯
  - 寶積經新舊譯
  - 大集經新舊譯
  - 華嚴經新舊譯
  - 涅槃經新舊譯

(36) 智昇. 開元釋教錄(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37) 姚名達. 目錄學, p. 103.

(38) 智昇. 前揭書, pp. 583—625. (大正新修大藏經 目錄部 所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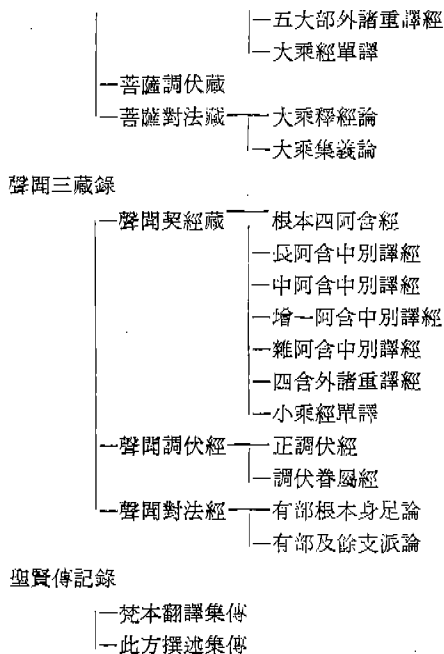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智昇의 「開元釋教錄」은 먼저 佛敎典籍을 兩大部 즉, '正錄' 과 '別錄' 으로 나누었다. 前者는 群經의 總錄이며 後者는 藏錄 가운데 專門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인 바, 다시 '有譯有本·有譯無本·支派別行·刪略繁重·拾遺補闕·疑惑再詳·僞妄亂眞'의 7綱으로 分類하고 末尾에 '大乘入藏錄' 과 '小乘入藏錄' 2綱을 附錄했다. 每綱은 다시 몇 個의 目으로 分類된다. 예를 들면,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有譯有本' 아래 '大乘錄·小乘錄·傳記錄' 으로 나누고, '大乘錄' 과 '小乘錄' 을 다시 經律論三藏으로 細分하였으며, 그 아래서 다시 細目으로 區分하였다. 예를 들면, '大乘經' 은 다시 '般若經新舊譯·寶積經新舊譯·大集經新舊譯·華嚴經新舊譯·涅槃經新舊譯·五大部外諸重譯經·大乘經單譯'의 7細目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智昇의 「開元釋教錄」의 經論分類는 이전의 어떠한 分類體系 보다

더욱 精密함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大乘·小乘의 分類가 고착이었으나 이에 이르러 大小乘을 다시 經論論으로 區分하고 그 下位分類도 더욱 詳細하여 졌다. 佛典目錄의 集大成이라고 할만하다.

그 후에 圓照가 「貞元新定釋教錄」 30卷을 編纂했는데 거의 「開元釋教錄」을 借用하고 다만 新釋經 몇 가지를 더했을 뿐이었다.<sup>(39)</sup>

宋代에는 道教가 盛行하고 佛教가 衰落하여 겨우 「祥符釋教錄」과 「景祐釋教錄」이 있었지만 그나마도 지금은 모두 傳하지 않는다.<sup>(40)</sup> 佛教는 喇嘛教를 崇尚하여 大藏經의 撰修에 沒頭하였으므로 王古의 「大藏聖教法寶標目」 및 慶吉祥이 勅命을 받아서 編撰한 「至元法寶勘同」이 있었는데 모두 元의 大藏經原目的 順序에 의하여 收錄했다.<sup>(41)</sup>

王古의 目錄은 ‘抄錄’ 體裁로 되어 각 經論의 教理內容·傳譯의 淵源·譯本의 分合 異同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쾌하게 論及하고 있다.<sup>(42)</sup>

慶吉祥의 目錄은 漢文과 藏文의 두 가지 大藏經을 對照, 그 異同을 校勘한 것인바, 校讎에 置重한 것이다.

明末에 智旭이 「閱藏知津」을 만들었는데 王古의 뜻을 欽慕하여 ‘抄錄’ 形式을 採用하고자 했으나 各經論의 篇目만을 記述하고 그 內容을 言及하지 못했으므로 王古의 目錄에 比하여 뒤떨어진다.<sup>(43)</sup>

### Ⅲ. 現代의 主要佛典分類法

오늘날에도 佛敎學에 대한 研究가 全世界的으로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다. 따라서 佛敎典籍의 分類가 더욱 重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中國의 佛敎典籍分類法 가운데 비교적 主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택하여 그 分類體系를 살펴본다.

(39) 陳鴻飛, 前揭論文, p.111.

(40-41) 姚名達, 目錄學, p.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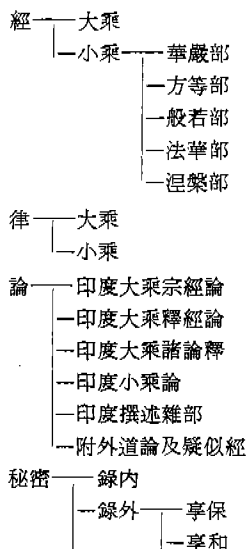
(42) 梁啓超, 前揭論文, p.51-52.



## 1. 頻伽精舍主人分類法

頻伽精舍主人은 佛法에 歸依한 이래로 信心이 篤實하여 華嚴經을 筆寫하고 日課를 精持했다. 평소 日本弘法院小字藏經을 閱覽하고 尋檢과 誦讀의 便利함을 기뻐하였으나, 年老한 사람들은 글씨가 작아서 오히려 보기가 힘든 것을 알고 이에 크게 發願하여 大字本을 만들게자 했다. 日本弘法院本을 底本으로 하여 온갖 苦生을 하며 4年의 時間을 쏟고 15萬金을 들여서 비로소 그 일을 끝낼 수 있었다. 中國圖書公司가 印刷를 맡아 民國 2年(1913)에 刊行하였는데 모두 1千 9百 16部 8千 4百 16卷 4百 14冊 總 40函에 달하는 鉅帙이었다. 이의 校勘을 위하여 宋藏·元藏·明藏·清藏·高麗藏 등을 널리 섭렵했다고 한다.<sup>(44)</sup> 그 分類體系는 다음과 같다.<sup>(45)</sup>

〈表 9〉 頻伽精舍分類法の 體系



(43) 呂澂, 前揭書, p.19-20.

(44) 陳鴻飛, 前揭論文, p.112.

(45) 上揭論文, pp.11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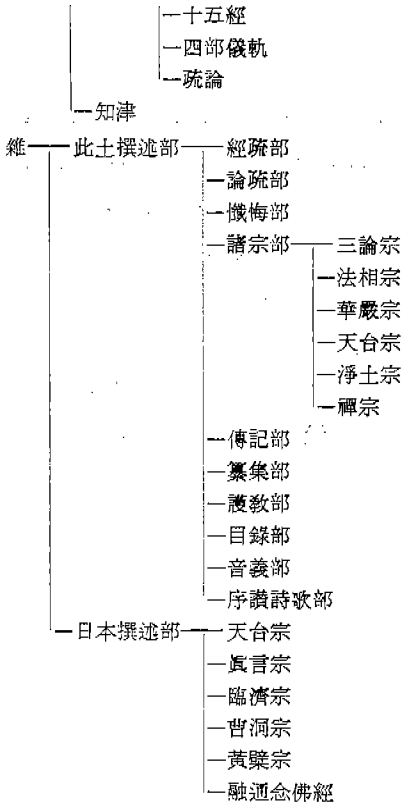


表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類加分類法은 먼저 全體大藏의 經典을 性質에 따라서 經·律·論·秘密·雜의 5類로 나누고 每類를 다시 몇 개의 綱으로 分類하였으니, 예컨대, 秘密藏을 다시 錄內·錄外·知津의 3綱으로 區分하고 綱 아래에서 다시 細分하였다. 이 分類法은 全般的으로 性質에 의하여 分類하고 있으나 地域區分法도 併用하였으니, 예컨대, 印度撰述部·中國撰述部·日本撰述部로 나눈 것이 그것이다.<sup>(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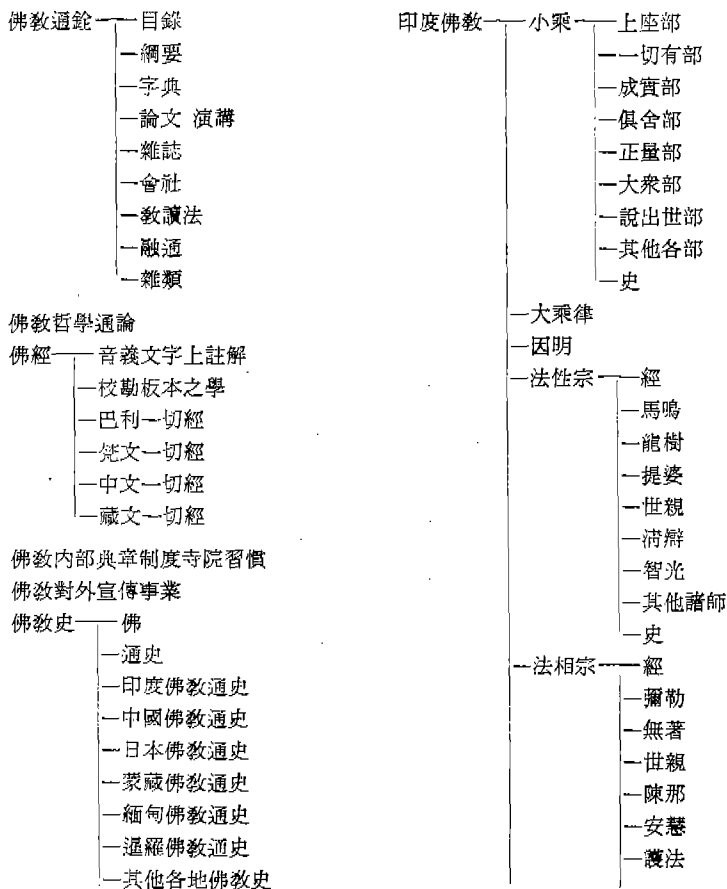
(46) 上掲論文, p.117.

## 2. 王文山分類法

王文山에 民國 14年(1925) 「南開大學圖書館目錄」을 編纂하였는데 그 중 佛教典籍分類部分이 특히 詳細하여 매우 重視되고 있다.

表로 보이던 다음과 같다.<sup>(47)</sup>

〈表 10〉 王文山分類法の 體系



(47) 上揭論文, pp.118-122.



王文山の 佛教典籍分類法은 DDC 를 參照하여 考案된 것<sup>(48)</sup>으로 알려져 있다. 이 分類法은 佛教典籍을 먼저 10大類 즉, 通詮·通論·佛經·佛教內部制度·對外宣傳·佛教史·印度佛教·中國佛教·日本佛教·其他各國佛教로 나누고, 다시 類 아래 綱을 두고, 綱 아래서는 目으로 細分하였다. 이 分類法은 그 內容이 매우 精密하고 實用的이며, 특히 佛教典籍十進法의 嚆矢<sup>(49)</sup>가 된다. 그러나 이 分類法도 10進分類法이 共通의으로 지니는 短點을 가지고 있다. 意識的으로 10개의 主題로 限定하다 보니까 主題의 輕重이 고르지 않게 되었다는 批判이 가해지고 있다. 예컨대, 佛教對外宣傳事業은 一般佛教典目錄에서는 그다지 重要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大類의 하나로 되어 經典과 同位類로 取扱하고, 또한 佛教史와 佛教制度도 모두 大類를 차지하여 衡平을 잃고 있다. 이러한 點은 이 分類法의 玉의 티라고 할 수 있다.

### 3. 劉國鈞의 分類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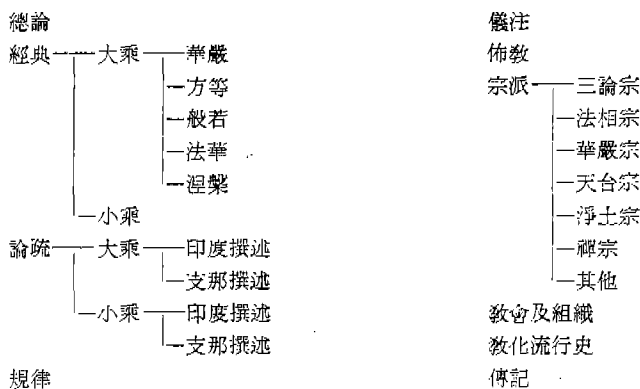
劉國鈞은 江蘇省 南京人으로 金陵大學文學院을 卒業한 後 美國 위스콘신

(48) DDC 와 같이 十進法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佛教는 294이며 佛教哲學通論은 2941로 되어 있다.

(49) 陳鴻飛. 前揭論文, p.122.

大學 圖書館學科를 修了하고, 일찌기 國立北平圖書館長 및 「圖書館學季刊」 主任編集者를 歷任하는 등 中國圖書館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sup>(50)</sup> 또한 中國書籍史 分野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 分類法은 劉國鈞이 編纂한 「中國圖書分類法」 가운데 佛教典籍部分이다. 그 分類體系는 다음과 같다.<sup>(51)</sup>

〈表 11〉 劉國鈞分類法の 體系



#### Ⅳ. 結 論

이상에서 叙述한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中國最初の 佛教典籍目錄은 東晉 寧康 2年(374) 釋道安에 의하여 編纂는 「綜理衆經目錄」이다. 이 目錄은 亡失되어 傳하지 않지만 뒤에 나온 僧祐의 「出三藏記集」을 통하여 그 輪廓을 把握할 수 있다.

2. 釋道安의 「綜理衆經目錄」의 體裁를 繼承한 「出三藏記集」은 6世紀初葉 梁代 天監年間に 僧祐에 의하여 編纂되었는 바, 現存 最古의 佛典目錄이다. 이 目錄은 撰緣記·銓名錄·總經序·述列傳의 4類로 編成되어 있으며, 그

(50) 張長清主編, 現代佛教學術叢刊目錄·索引,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民國 69 [1980], p.259.

(51) 劉國鈞, 中國圖書分類法, 南京, 金陵大學圖書館, 民國 19 [1930], p.15.

중 銓名錄이 釋道安의 目錄을 模倣한 것이다.

3. 北魏 永熙年間(532—534)에 李廓에 의하여 編纂된 「魏衆經目錄」은 매우 條理있는 目錄으로 評價되고 있다. 이 目錄은 大小乘分類를 確立하고 經律論分類를 創案하였으며 未譯經論類를 設定하는 등 貢獻이 많으나, 아쉽게도 전하지 않는다.

4. 佛敎의 全盛期에 접어 든 隋나라 開皇 14年(594) 法經 등 20人의 學僧들이 撰修한 「隋衆經目錄」은 現存하는 佛典目錄에서 가장 嚴格하고 法度있는 것으로 꼽힌다. 大小乘分類에다가 經律論區分을 適用하였고 抄集錄·傳記錄·著述錄을 獨立시켜서 다시 각각 西域과 此土로 나누었다.

5. 「歷代三寶記」는 隋나라 開皇 17年(597)에 費長房에 의하여 編纂되었으며 15권의 比較的 큰 規模의 目錄이다. 이 目錄보다 不過 3年前에 나온 法經의 「隋衆經目錄」이 4094卷을 著錄하고 있을 뿐인데 이 여기서는 무려 6235卷에 이르는 佛典을 收錄하고 있다.

6. 唐나라 麟德元年(664)에 道宣이 編纂한 「大唐內典錄」은 法經과 費長房 두 派의 長點을 取하여 合理的·體系的으로 佛典目錄의 白眉가 되는 目錄이다. 예컨대, 衆經舉要轉讀錄을 考案하여 各種의 異譯經에 대하여 最善本 하나씩을 提示하고 있는 바, 이러한 點만 보더라도 그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7. 中國佛典目錄史上 最高의 傑作이라고 할 수 있는 「開元釋教錄」은 唐나라 開元 18年(730) 智昇이 「大唐內典錄」을 模倣하여 한층 深化시킨 것으로 分類의 詳細함이 더할 나위가 없게 되었다. 이전에는 大乘·小乘의 分類가 고작이었으나 이에 이르러 大小乘을 다시 經律論으로 區分하고 그 下位分類도 더욱 詳細하여졌다.

8. 「開元釋教錄」 이후에도 佛典目錄 끊임없이 編纂되어 점차 더욱 發展되어 갔다. 圓照의 「貞元釋教錄」, 王古의 「聖敎法寶標目」, 慶吉祥의 「至元法寶勘同」, 釋智旭의 「閱藏知津」등은 그 重要한 것들이다.

9. 現代中國의 佛典目錄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頻伽精舍主人分類法·王文山分類法·劉國鈞分類法 등이 있는 바, 頻伽精舍分類法은 傳統的인 佛典分類體系를 維持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種은 西洋的인 十進法의 形式으로 編成된 것이다.

### 參 考 文 獻

脚註로 代身함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Buddhist Books

Kim, Jong-Chune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 1) the changing process of ancient Chinese Buddhist books catalog with comparison of catalog.
- 2)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Chinese Buddhist books Catalog with analysis of their classification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origin of Chinese Buddhist books catalog is the Chongrijung-kyongmokok(綜理衆經目錄) that was compiled by Doan(道安), however this catalog can not be discovered.
- 2) The oldest Buddhist books catalog which is available is the Chul-samjangkigib(出三藏記集) by seungu(僧祐)
- 3) The Sujungkyongmokok(隋衆經目錄) by Bubkyong(法經), et al. is known as the most reasonable and systematic Buddhist books catalog.
- 4) The Kaewonsukkyorok(開元釋教錄) which is compiled by Jiseung(智昇) in Tang dynasty, is evaluated as the most perfect and useful catalog. This catalog had a great effect on the later catalogs.
- 5) The important current Buddhist books catalogs are the Bingajungsa(頻伽精舍) catalog, the Wangmunsan(王文山) catalog, the Yukukkyun(劉國鈞) Catalog, et al., each of them has an own characteristics.